

첫발 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신뢰회복 위해 2단계 입법 시급

가상자산 법제화 급물살

의심거래보고 해마다 크게 늘어 1단계로 '투자자 보호법' 의결 규제 보완 2단계 신속 이뤄져야

지지부진하던 가상자산법제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 11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지난 4월 2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후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그간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등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으로, 향후 발행과 공시에 관한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 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자산시장은 지난 2017년부터 빠

(최근 3년간 가상자산 업권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현황)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21	-	-	-	-	-	-	-	-	-	2	21	176	199
2022	759	304	368	831	1164	924	1,145	1,455	1,139	1,048	908	982	10,797
2023	749	914	1,077	1,033	202	-	-	-	-	-	-	-	-

가상자산사업자의 STR 보고는 2021년 10월부터 시행



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주요국들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시장과 버금가게 성장했다.

가격만 놓고 봤을 때 대장주 비트코인의 경우 2017년 5월 1만2000달러에서 현재 2만7000달러까지 상승했다. 이 기간 비트코인은 6만5000달러(2021년 11월 최고가)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시장은 제대로 된 규제 법안이 없어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관련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됐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에는 불투명한 코인 상장 절차,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의혹 등 각종 범죄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가상자산법이 절실했던 것이다.

국회는 지속된 가상자산업계악재로 인해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파악해 1단계 법안으로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의심거래보고(STR)를 신고 받은 건수는 총 1만497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99건, 2022년 1만797건, 2023년 5월 기준 3975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FIU 정보제공 건수 중 범죄가 입증된 건수는 6291건이다.

시장에서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서든 2단계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1단계 법안 공포 1년 후에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뒀지만 국회에서 의결된 만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며 "2단계 법안으로 시장 전반의 규제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DGB생명, 변액보험펀드 1조 기념 플로깅

보험 브리핑

교보생명 '뇌·심장건강보험' 출시 24종 특약으로 치료 전과정 보장

DGB생명이 ESG마운틴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

◆DGB생명, 1분기 성과 점검 및 봉사 활동 실시

DGB생명은 변액보험펀드 순자산 1조원 달성을 기념해 지난 12일 서울 청계산에서 ESG 마운틴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1분기 성과를 돌아보고 상반기 경영목표 초과달성을 결의하는 워크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성한 DGB생명 대표와 본부·부서장 등 임직원 24명은 서울 청계산 등지에서 마운틴 플로깅에 나섰다. 마운틴 플로깅은 등산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활동이다.

임직원들은 행사에 앞서 변액보험펀드 순자산 1조원 돌파 등의 성과를 점검하고 다음 경영목표를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DGB생명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인 306억원을 기록했으며, 계약서비스마진은 6923억원을 기록해 업계 상위권에 안착했다. 신지급여력 비율 역시 1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생명이 뇌·심장질환 예방부터 검사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출시했다.

◆교보생명, '뇌·심장질환 치료 전 과정' 보장

교보생명은 보험 하나로 뇌·심장질환 예방부터 검사, 수술, 치료 후 합병증까지 보장하는 '교보뇌·심장건강보험(무배당, 갱신행)'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뇌·심장질환 특화보장보험으로, 주계약과 다양한 특약을 통해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치료 여정별 맞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계약에서는 뇌·심장질환 진단, 수술, 입원 보장은 물론, 검사와 경증질환 진단까지 신규 보장을 강화했다.

주계약 가입만으로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진단과 함께 일과성뇌허혈 발작, 양성뇌종양, 부정맥, 특정심근병증 등 경증질환 진단,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심장질환 산정특례를 보장한다. 또한 뇌혈관질환·심장질환 수술 및 입원·통원 치료, 2대질환 혈관조영술검사 및 CT·심장초음파·뇌파·뇌척수액검사, PET검사 등을 폭넓게 보장 받을 수 있다.

24종의 특약을 통해 예방, 치료, 회복 관리까지 뇌·심장질환 치료 전 과정을 보장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고혈압, 당뇨 등 전조질환부터 협심증, 뇌출혈·뇌경색증은 물론, 뇌경위적방사선수술, 특정뇌동맥질환혈관색전수술,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수술, 스텐트삽입수술, 혈전용해치료, 수혈, 중환자실 입원 등을 보장한다. 또한 치료 후 회복 관리를 돕기 위해 재활치료와 합병증, 간병, 육창, 뇌·심장장애 등 후유증을 보장하는 신규 특약도 확대했다.

고령층이 보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가입 나이를 80세까지 늘리고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것도 장점이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거나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될 경우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금감원, 1사1교 금융교육 수상사례집 발간

사회적 공감대 위해 우수사례 전파 결연실적, 교육비중 등 성과 수록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수상자들의 교육사례와 경험담을 담은 수상사례집(사진)을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1사 1교 금융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우수 교육사례를 전파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교 및 금융사 등 교육 담당자들이 금융교육 필요성을 느끼며 우수 교육사례를 벤치마킹해 '1사 1교 금융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상 사례집은 교육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상자들의 1사 1교 금융교육 사례를 실질적·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1년간의 학교와 금융회사간 결연 실적, 교육 횟수, 체험형 교육 비중 및 교

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 교육 성과를 수록했다.

그리고 신규참여 학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결연 계기, 교육 내용, 학교 차원의 금융교육 노력 등 교육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용돈기입장 작성, 금융 뮤지컬 관람 및 금융 퀴즈게임 등 학교별 다양한 체험교육 사례도 포함했다.

아울러 부록편에서는 학교수업에 활용가능한 금감원의 각종 금융교육 콘텐츠를 종류별로 간략히 소개하고 활용방법을 안내했다.

/구남영 기자



DGB생명 임직원들이 12일 서울 청계산에서 ESG 마운틴 플로깅 행사를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GB생명

하나은행, 첫 급여이체 시 숙박권 등 선물

'K-직장인 이뤘드림' 이벤트

하나은행은 첫 급여를 하나은행으로 이체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K-직장인 이뤘드림' 급여이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직장인들이 회사에 바라는 혜택을 급여통장이 대신 이뤄드린다는 컨셉으로 하나은행 계좌로 급여를 처음 받는 손님에게 주침을 통해 ▲100만 하나머니 ▲호텔숙박권 ▲영화관람권 ▲버거세트 교환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특히, 손님이 원하는 '이뤘드림 혜택'의 응모자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손님의 혜택 선택에 도움주고 재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손님이 선택한 이뤘드림 혜택의 당첨확률은 5월, 6월 연속 급여이체시 더욱 높아진다.

또한, 하나은행의 대표적인 직장인 적립식 상품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의 금리우대 0.2%포인트(p) 쿠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리우대 0.2%포인트(p) 적용시 최고 4.75%(2023년 5월 15일 기준, 세전 1년제, 청년우대특별금리 적용시 최고 6.05%)의 금리가 적용되며, 금리우대 쿠폰은 하나은행 급여이체 첫거래 손님 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나은행 계좌로 급여를 받고 있는 고객도 적용된다.

/구남영 기자

신보, 혁신방향 모색 국민생각 공모

고객·국민과 더 가까이 등 9개 주제 내달 11일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

신용보증기금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기관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3 신보혁신 국민생각 공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내달 11일까지이며, 대

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정부 혁신 방향과 신보 비전체계를 반영한 ▲기업 종합지원기관 신보 ▲민간 혁신성장 뒷받침 및 미래 위기 선제 대응 ▲고객·국민과 더 가까이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의 4개 부문 총 9개 주제로 구분되며 참가자는 이 중 1개 주제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신보는 시민 참여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팀), 우수상 1명(팀), 장려상 3명(팀)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 아이디어 중 일부는 '신보혁신 추진계획'에 반영되며 특히 올해는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단계에서 제안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신보 혁신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